

개원 1년차의 보험청구, 개원 20년차의 보험청구 -  
진료 기록에 따른 XYZ세대와 MZ세대까지 공감 프로젝트

최 성 호 / 연세남대문치과

강 호 덕 / 방배본치과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세대 차이'에 대한 논란은 늘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치과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치과임상 여러분야에서 나타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전자차트이다. 최근 신규로 개원하는 치과는 대부분 전자차트를 도입하는 반면 개원 시 종이차트로 시작한 개원한지 오래된 치과는 아직도 종이차트를 사용하고 곳이 많다.

진료 기록 방법에 있어서도 세대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료 기록 차이는 보험청구에서도 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험청구는 기본적으로 진료 기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이차트에 비해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것은 보험청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험청구 업무를 실무자 한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전자차트의 경우 진료실에서 버튼을 클릭한 내용이 보험청구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트를 공유하는 치과내 모든 인력이 청구업무에 관여하게된다. 또한 차팅 단계에서 보험 산정기준과 관련된 여러 알림을 주고, 보험 진료의 입력과 동시에 청구입력도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전자차트의 사용이 보험 청구에 있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그리고 종이차트만이 가지는 장점들도 있다.

이에 이번 강의에서는 종이차트와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각각의 경우 효율적으로 보험청구 업무에 활용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학력 및 경력

•최성호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 \* 현,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연세남대문치과의원 원장

•강호덕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 \*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비상근심사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상대가치위원회 위원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방배본치과의원 원장